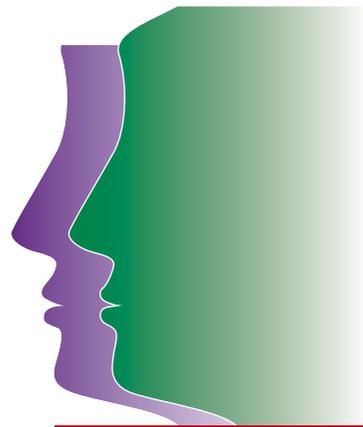


제 30주년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 2011 Peace BAR Festival



Peace BAR Festival



경희대학교

# 2011 Peace BAR Festival

In Celebration of the 30<sup>th</sup> Anniversary of the UN International Day of Peace

## *Contents*

취 지

엠블럼 및 로고

개 요

행사구성

종합일정

프로그램 제 30주년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미래문명포럼  
경희학생포럼

The background of the image is a light beige or tan color. It features a faint, stylized map of the world in the background. Overlaid on the map are numerous white doves in flight, scattered across the globe. In the center of the image, there is a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a thin, dark border. Inside this box, the text is centered. The main title is in a large, bold, serif font, and the subtitle is in a smaller, sans-serif font below it.

# 2011 Peace BAR Festival

In Celebration of the 30<sup>th</sup> Anniversary  
of the UN International Day of Peace

# 취 지

오늘날 인류 사회는 우주과학과 첨단정보기술이 빚어낸 위대한 문명의 빛을 발산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문명의 축복과 재앙을 동시에 경험한다. 정보통신과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우주과학의 발달은 삶의 지평을 범우주로 확장시켰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이성주의 남용이 초래한 문명적 폐해는 견잡을 수 없는 재앙을 낳고 있다. 인류사회는 자연재해, 기후변화, 자원 고갈, 첨단무기의 위협, 국가 체제의 혼란, 빈곤의 양극화 등 총체적 위기 속에 있다. 이제 인류는 문명의 다양한 성취와 한계를 근본적으로 반추해보며 새로운 희망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문명은 부분과 전체, 중심과 주변, 감성과 이성의 경계를 넘나들며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면서 새로운 상상력의 대역사를 이룬다. 이제 우리는 고통 하는 몸을 수용하고, 죽음과 파괴를 생명으로 재창조하는 문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향후 도래할 미래 문명을 예견하고 몸의 느낌과 정신, 미학적 상상력으로 작은 몸인 생명체, 정치사회적 몸인 인류 공동체, 큰 몸인 우주 공동체를 새로이 탐구해 본다. 우주와 자연환경의 재앙을 넘어 몸과 문명의 새로운 유토피아를 향한 아름다운 선택이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

경희대학교는 '몸과 재앙: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2011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한다. 인간과 지구의 고통에 민감하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인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주과학의 가능성과, 문화예술의 창조성, 그리고 인류공동체의 새로운 비전을 탐구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대학과 지역사회, 지식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2011 Peace BAR Festival은 "정신적으로 아름답고(spiritually Beautiful), 물질적으로 풍요로 우며(materially Affluent), 인간적으로 보람있는(humanly Rewarding)" 미래의 지구상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우주공동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시민의 희망의 대제전이 될 것이다.

# 엠블럼 및 로고

## ■ 엠블럼



## ■ 로고

*B*eautiful

*A*ffluent

*R*ewarding

## 개요

2011 Peace BAR Festival은 2011년 10월 28일(금)부터 11월 1일(화)까지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 시민단체, 대학(원)생, 일반인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 사 명	제 30주년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2011 Peace BAR Festival
주 제	몸과 재앙 :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The Body and Catastrophe: Towards a New Utopia
기 간	2011년 10월 28일(금) ~ 11월 1일(화)
장 소	경희대학교
참 가 대 상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 시민단체, 대학(원)생, 일반 참가자
주 최 / 주 관	경희대학교 / 미래문명원
후 원	중앙일보

# 행사구성

2011 Peace BAR Festival은 국제학술회의, 미래문명포럼, 경희학생포럼으로 구성된다.

## 미래문명포럼

- 미래의 대학교육과 교양교육  
Liberal Arts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 경희학생포럼

- 몸과 재앙 :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The Body and Catastrophe: Towards a New Utopia



## 국제학술회의

- 몸과 재앙 :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The Body and Catastrophe: Towards a New Utopia

2011 Peace BAR Festival

# 종합일정

일시		프 로 그 램		장 소
10월 28일(금)	10:00 ~ 13:00	미래문명포럼 미래의 대학교육과 교양교육		본관2층 대회의실
	12:30 ~ 15:30	경희학생포럼 몸과 재앙 :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호텔관광대학 컨벤션홀
10월 31일(월)	10:30 ~ 12:00	국제학술회의	개 회 식	평화의전당
	13:30 ~ 14:30		기 조 강 연	청운관 B117호
	14:45 ~ 16:15		기조발표 1 몸과 우주	
11월 1일(화)	10:30 ~ 12:00		기조발표 2 몸과 문화	
	13:30 ~ 15:00		기조발표 3 몸과 인류공동체	
	15:30 ~ 17:30		라운드테이블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	

# 프로그램

## 1. 제 30주년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 몸과 재앙 :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The Body and Catastrophe: Towards a New Utopia

## 2. 미래문명포럼

- 미래의 대학교육과 교양교육  
Liberal Arts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 3. 경희학생포럼

- 몸과 재앙 :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The Body and Catastrophe: Towards a New Utopia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1993)

## 1. 제 30주년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 주 제 몸과 재앙 :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The Body and Catastrophe: Towards a New Utopia

범지구적 교류협력과 문명 담론의 장인 Peace BAR Festival 국제학술회의는 지난 2010년에 몸과 문명을 주제로 몸에 대한 철학적, 실천적 담론을 제기하였다. 2011년 지구촌은 일본의 쓰나미와 원전 발전소의 재앙, 기후변화로 인한 격심한 자연재해 등 문명의 위기 징후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재앙의 원인과 현상을 규명하고 생명 중심적 미래 문명을 새롭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경희구성원과 세계 석학이 한 자리에 모여 문화예술의 생명체인 몸, 정치사회 공동체인 몸, 우주의 몸에 관한 자유로운 소통과 영감을 공유한다. 재앙을 극복하는 몸, 생명을 회구하는 몸의 전방위적 성찰을 통하여 문명의 성숙과 인류 공동체의 도약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간다.

일 시 2011년 10월 31일(월) ~ 11월 1일(화), 10:30 ~ 18:00

장 소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청운관 B117호

## 프로그램 1. 제 30주년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 개 회 식

2011년 10월 31일(월) 10:30 ~ 12:00 /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 사 회 신 은 희 (경희대학교 교수)
- 개 회 선 언 김 홍 우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명예원장)
- 환 영 사 조 인 원 (경희대학교 총장)
- 문 화 행 사 “수레바퀴 아래서”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 기조강연

### 주 제 정치적 몸, 잃은 것과 얻은 것

정치적 몸(Body Politic)은 모든 구성원들이 윤리적으로 서로 개입하고 정의와 전체 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실천하며 구성원들의 결속을 격려하고 염려하고 '보살피는'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몸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정치 공동체는 재난과 재앙의 극심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서 정치적 몸이 필요로 하는 처방과 보살핌은 어떤 것인가?

발 표 Fred Dallmayr (University of Notre Dame 교수, 정치학, 철학)

일시/장소 2011년 10월 31일(월), 13:30 ~ 14:30 /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7호



## 프로그램 1. 제 30주년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 기조발표 1

#### 주 제 몸과 우주

2011년은 우주왕복선 발사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구표면이라는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우주개발은 20세기 인류 문명이 낳은 위대한 궤적이며 인간 개척 정신의 절정이기도 하다. 우주탐사는 태양계를 벗어나 미지의 행성을 향해 전진을 계속하면서 우주에 대한 서사를 새롭게 펼쳐나가고 있다. 우주적 관점은 생명의 기원, 몸과 정신, 인간과 지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한다. 우주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곧 우리 몸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가능케 한다.

사 회 남 순 건 (경희대학교 교수, 물리학)

발 표 Lawrence Krauss (Arizona State University 교수, 물리학)

토 론 Richard de Grijs (베이징대학교, 경희대학교 교수, 천체물리학)  
이 총 형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과학철학)

일시/장소 2011년 10월 31일(월), 14:45 ~ 16:15 /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7호



## 기조발표 2

### 주 제 몸과 문화

문화예술은 인류 문명의 총체적 흔적이자 서사이다. 인류문화의 역사는 찬란한 유산과 지혜를 남겼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적 갈등과 충돌을 만들기도 했다.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배타적 사고, 인간과 자연을 배제한 가치체계, 개발 논리와 기술 만능의 사유방식은 환경 파괴와 재앙을 초래했다. 오늘날 우리는 문화의 새로운 창조적 힘을 회복해야한다. 몸과 재앙에 대한 문화적 접근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회적 재앙에 대한 미학적 시도이며 치유의 힘이다.

사 회 이 택 광 (경희대학교 교수, 영미문화학)

발 표 Annemarie Mol (University of Amsterdam 교수, 철학)

토 론 이 혜 정 (경희대학교 교수, 침구학)  
김 종 갑 (건국대학교 교수, 영미문학이론)

일시/장소 2011년 11월 1일(화), 10:30 ~ 12:00 /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7호



## 프로그램

1. 제 30주년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 기조발표 3

#### 주 제 몸과 인류공동체

재앙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다. 재앙의 도래가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인류 역사는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 의지로 위기를 극복해 왔다. 과학기술, 문화예술, 공동체사회에 대한 학제 간 탐색과 실천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긴장과 갈등, 불안과 공포의 진원지를 규명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단위들이 국경을 비롯한 다양한 경계를 초월하는 교류 협력을 이뤄나가야 한다.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몸과 몸의 네트워크, 공감과 배려, 나눔과 창조의 공동체가 전 지구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사 회 임 성 호 (경희대학교 교수, 비교정치, 미국정치)

발 표 John Law (Open University 교수, 사회학)

토 론 박 희 제 (경희대학교 교수, 사회학)

김 기 흥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사회학)

일시/장소 2011년 11월 1일(화), 13:30 ~ 15:00 /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7호



## 라운드테이블

### 주 제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

'몸과 재앙'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던 발제자와 토론자가 원탁에 앉아 현대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명의 축복과 재앙을 재조명한다. 우주와 생명의 비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몸에 관한 대안적 담론을 제시하는 문화예술의 전복적 상상력과 만나는 것이다. 우주적 사유와 몸 담론이 다양한 접점을 만들어갈 라운드 테이블은 정치사회적 재난은 물론 지구적 차원의 재앙을 극복하는 인간의 초월적 역량을 모색할 것이다. 몸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보편가치가 개별적 인간의 '작은 몸'을 통해, 공동체적 인류의 '큰 몸'에서 구현될 것이다.

진 행 박 용 승 (경희대학교 교수, 인적자원관리)

토 론 Fred Dallmayr (University of Notre Dame 교수, 정치학, 철학)

Lawrence Krauss (Arizona State University 교수, 물리학)

Annemarie Mol (University of Amsterdam 교수,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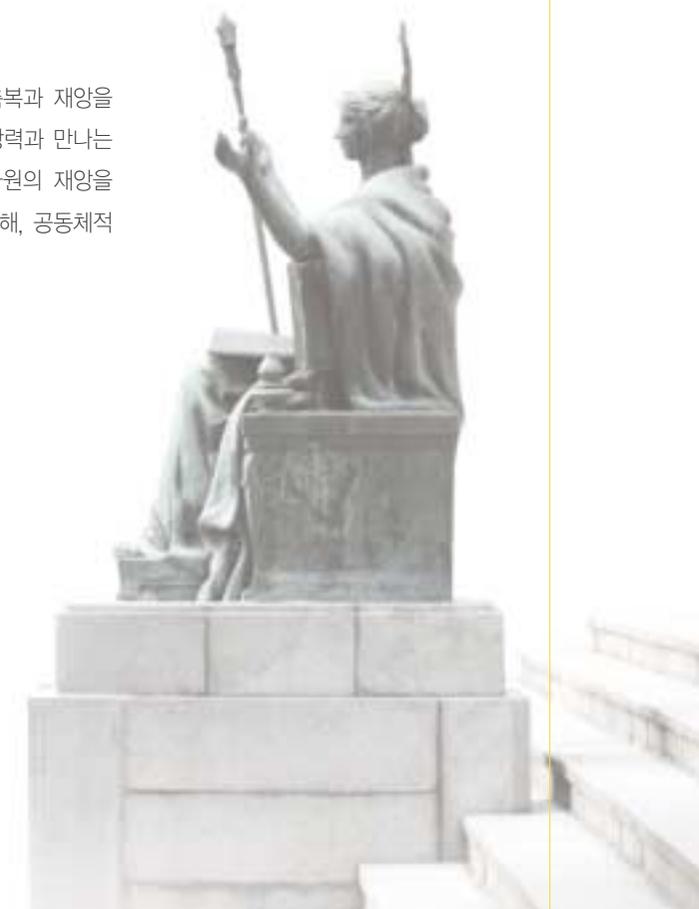
John Law (Open University 교수, 사회학)

정 서 영 (경희대학교 교수, 약학)

서 덕 영 (경희대학교 교수, 전기 및 컴퓨터공학)

이 진 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사회학)

일시/장소 2011년 11월 1일(화), 15:30 ~ 17:30 /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7호



## 발표자 소개

1. 제 30주년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 기조강연자



**Dallmayr** 교수는 1955년 독일 뮌헨 대학에서 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960년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정치학으로 두 번째 학위를 받았다. 1978년 이후 미국 Notre Dame 대학의 정치학과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2년 독일의 대표적인 철학자 가다머 (Hans-Georg Gadamer) 사후 현상학적 해석학의 전통을 물려받은 현존하는 최고의 사상가로 인정받고 있다

- 주요저서
- *The Promise of Democracy* (2010)
  - *Integral Pluralism: Beyond Culture Wars* (2010)
  - *In Search of the Good Life: A Pedagogy for Troubled Times* (2007)
  - *Peace Talks: Who Will Listen?* (2004)

### 기조발표자



**Lawrence Krauss** 교수는 우주분야 관련 전문가로 Arizona State University의 Origins Project의 책임자이다. 2009년 Origins 심포지움 개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우주 및 물리학에 관련된 다양한 저서를 출간하였다.

- 주요저서
- *Hiding in the Mirror* (2005)
  - *Atom* (2002)
  - *Quintessence* (2001)
  - *The Physics of Star Trek* (1995)

### 기조발표자



**Annemarie Mol** 교수는 네덜란드 인류학자이자 철학자로서, John Law와 함께 사회적 영역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과학과 기술, 의학 분야에 대한 후기 ANT/페미니스트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2004년 저서 *The Body Multiple*로 Luwik Fleck Prize를 수상하였다.

- 주요저서
- *Differences in medicine: unraveling practices, techniques, and bodies* (1998)
  - *Complexities: social studies of knowledge practices* (2002)
  - *The Body Multiple: ontology in medical practice* (2002)

## 기조발표자

**John Law** 교수는 프랑스의 Bruno Latour와 함께 행위자네트워크(ANT) 이론을 만든 학자로 과학과 기술, 사회 변화에 대한 관계를 새롭게 조명한 사회학자이다. 사회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류의 재난적 상황, 즉 대형철도사고나 구제역, 대지진 등 재난의 사회에서의 인간행위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 주요저서
- *After Method: Mess in Social Science Research* (2004)
  - *Aircraft Stories: Decentering the Object in Technoscience* (2002)



## 특별참여자

**Yann Arthus-Bertrand**은 1994년 유네스코 후원을 받아 '하늘에서 본 지구-우리 지구의 초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2000년 그의 책은 전 세계적으로 350만부 이상 판매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006년 르몽드가 선정한 '지구를 구한 10인' 중 한명이며, 2009년 '6 Billion Others'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여 인간의 행복과 불행, 사랑과 증오를 재조명하였다. 2009년 전 세계 54개국에 걸쳐 217일 동안 항공촬영으로 제작된 필름 'Home'을 상영을 하였으며 전 세계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현재 아카데미 데 보자르 정회원이며 사르코지 예술정책 자문위원이다.

- 주요저서
- *Our Living Earth* (2008)
  - *Future of Earth* (2004)
  - *Earth from Above* (2003)



## 주 제 미래의 대학교육과 교양교육

경희대학교는 새로 설립한 교양대학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통해 21세기 지구공동사회가 요청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미래지향적인 삶의 가치와 역할을 실천하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 미래를 위한 비전, 성실한 교육의 실행을 위하여 학부교육의 지속적인 혁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에 <미래문명포럼>은 교수, 직원, 학생이 함께 미래대학의 교육적 비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21세기를 선도할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모색해 본다.

- 구 성** Keynote Speech : 미래의 대학교육과 교양교육  
 Plenary Session 1: 미래문명을 위한 대학 교육 :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가르쳐라  
 Plenary Session 2: 세계화시대의 시민성과 대학교육  
 Plenary Session 3: 대학생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교양교육
- 발 표** Keynote Speech : 손 동 현 (성균관대학교 교수, 대교협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  
 Plenary Session 1: 윤 원 근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Plenary Session 2: 채 진 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Plenary Session 3: 최 상 민 (경희대학교 철학과 4학년)
- 토 론** Plenary Session 1: 이 은 정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Plenary Session 2: 박 영 선 (참여연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Plenary Session 3: 김 은 영 (경희대학교 법학과 4학년)
- 일시/장소** 2011년 10월 28일(금), 10:00 ~ 13:00 /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주 제** 몸과 재앙 :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우리대학은 2011 Peace BAR Festival 개최를 통해 인간과 지구의 고통에 주목하면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인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경희학생포럼>은 2011년 국제학술회의와 병행하여 '몸과 재앙: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란 동일주제로 대학 청년의 시각에서 우주과학, 문화예술, 인류 공동체의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제시해 본다. 이는 인간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성찰함으로써 네오휴머니즘의 인성을 함양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사 회** 전 아 람 (문과대학 영어학부)

**구 성** Keynote Speech 김 낙 우 (경희대학교 교수, 물리학)

Plenary Session 1부 - 몸과 우주  
 이 수 정 (이과대학 물리학과) 제 혜 린 (응용과학대학 우주학과)

2부 - 몸과 문화  
 김 유 경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이 봄 (국제대학 국제학과)

3부 - 몸과 인류공동체  
 김 보 배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박 종 찬 (국제대학 국제학과)

질의응답

**일시/장소** 2011년 10월 28일(금), 12:30 ~ 15:30 / 호텔관광대학 컨벤션홀



## ○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연혁

경희대학교는 1981년 UN 제 36차 총회에서 제정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국제학술회의를 매년 개최해 왔고, 2011년 현재 제 30주년을 맞고 있다. 역대 국제학술회의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 1982 *Crisis and Peace in Contemporary World*
  - 1983 *World Peace: Is It Possible?*
  - 1984 *World Peace Through the UN*
  - 1985 *U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 1986 *Search for Causes of International Conflicts and Ways to Their Solutions*
  - 1987 *The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Korean Peninsula in the Late 1980s*
  - 1988 *The North-East Asian Era and the Role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21<sup>st</sup> Century*
  - 1989 *Peace Beyond the East-West Conflict: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World Peace in the 1990s*
  - 1990 *The Search for a New World Peace Order with Reference to the Changes in the East-West Relations*
  - 1991 *New World Order: The Post-Ideological World in the 21<sup>st</sup> Century*
  - 1992 *Democracy and New International Order in the 21<sup>st</sup> Century*
  - 1993 *Peace in the Northeast Asia: Toward Greater Regional Cooperation*
  - 1994 *Restoration of Morality and Humanity*

- 1995 *Tolerance, Restoration of Morality, and Humanity*
  - 1996 *Peace Strategies for Global Community and the Role of the UN in the 21<sup>st</sup> Century*
  - 1997 *Visions and Realities in the 21<sup>st</sup> Century: The Role of East Asia*
  - 1998 *Global Visions Toward the Next Millennium: Modern Civilization and Beyond*
  - 1999 *Will World Peace Be Achievable in the 21<sup>st</sup> Century?*
  - 2000 *Global Governance in the 21<sup>st</sup> Century*
  - 2001 *Toward a Global Common Society Through Dialogue Among Civilizations*
  - 2002 *A Global Common Society Through Pax UN*
  - 2003 *Building a Global Common Society Through Neo-Renaissance*
  - 2004 *Urgent Tasks for Peace: Overcoming Terrorism*
  - 2005 *After Ideology: The 21<sup>st</sup> Century Talks*
  - 2006 *Reinventing Universality for the 21<sup>st</sup> Century: Beyond Freedom and Equality*
  - 2007 *Transformative Challenges: In Search of New Humanity and Community*
  - 2008 *Future Civilization, Future University: A New Horizon for Knowledge and Praxis*
  - 2009 「Kyung Hee Peace Workshop」
  - 2010 *The Body and Civilization: A New Horizon*
- 



